한국IR협의회 회보

11
2007
제 86 호

Korea Investor Relations Association

발행일:2007년 11월 12일 / 발행인:남영태 / 편집인:임태경 / 발행처:한국IR협의회 / TEL:(02)783-6501 / 제작처:천일인쇄

Contents

1 IR 컬럼
·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세계경제 전망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 조찬회중계
· 2008년 주요 경제이슈와 증권시장 전망
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리서치본부장

7 IR 협의회 소식

8 IR 정보
· 금융위기
· 게임 그 이상의 현실

12 IR 초대석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과제
정관용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15 한글맞춤법

16 우리회사 IR
· 고려개발㈜의 IR활동과 전략
김진성 기획팀 과장

18 금융도시탐방
· 스웨덴 스톡홀름 송일봉 여행작가

20 Business English

22 Analyst Report

24 IR 동정

IR 컬 럼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세계경제 전망

김 득 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發 신용경색 위기인 서브프라임 사태로 향후 미국 경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 초 미국 내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인 New Century Financial의 부도로 위기가 고조된 후 8월 BNP Paribas의 펀드 환매중단 조치와 기타 투자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 상품관련 투자 손실이 들어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신용경색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긴급자금 투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재할인율을 0.5%p씩 두 번 인하하였으며,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5%p인하하는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하는 달러화 약세와 원유를 비롯한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1990년대 말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2000년 말 6.5%이던 정책금리를 2003년 6월 1%까지 인하한 미 FRB의 저금리 정책에 있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과잉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다시 기준금리를 5.25%까지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었다. 이후 주택경기 둔화, 시중금리 상승으로 2006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30년 모기지 대출금리는 2005년 평균 5.9%에서 2007년 7월 6.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주택을 강제처분당하는 유질처분(Foreclosure)이 급상승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택가격 하락을 통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 주택가격이 1%하락할 경우, 민간소비와 주거용 건설투자는 각각 0.17%p, 0.96%p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0.11%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 대출 사례는 2008년까지도 간헐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대출 2년 후 시점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2005~06년에 집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2008년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서브 프라임 관련 부실현황의 정확한 파악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방법과 향후 공개될 서브프라임 관련 추가 부실 정도에 따라 서브프

라임 문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초까지 상승추세였던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격은 올해 3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다. 기존 주택의 판매가격도 7~9월 연속 하락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낮추었다. 주택 판매량은 2005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불안이 감지된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7년 8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3% 감소하여 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기존주택 판매도 7개월 연속 감소하여 1999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기존주택의 경우 2007년 2월 고점 대비 25% 하락하였다. 또한 2006년 이후 신규주택 착공은 크게 감소한 반면, 주택재고는 급증하는 등 주택경기는 침체기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는 2008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모기지 회사인 Fannie Mae의 Mudd 회장은 주택시장 침체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고 미국 주택가격은 올해 2~4%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FRB의장인 버냉키(Bernanke)는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주택가격이 하락추세이고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금리 재조정에 따른 부담증가 등으로 채무불이행과 주택유질처분 등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미국 부동산대출협회는 신규주택 착공이 2008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타 여러 기관들이 미국 주택시장이 향후 수개월내에는 호전되지 못할 것이고 2008년에도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아직 충분히 조정 받지 않은 주택가격이 2008년까지 하락하면서 실물경제가 둔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FRB의장인 그린스펀(Greenspan) 등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침체 확률을 30~40%에 이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경제가 2분기 연속 음(-)의 성장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둔화는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과 판매부진은 부의 자산효과를 가져와 소비 위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크게 영향을 준다면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IMF는 세계 전망보고서에서 美 주택시장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져, 소비가 둔화되고 고유가와 고용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同보고서에서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9%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고성장 - 저물가의 골디락스 경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세계 소비시장으로서 미국의 역할도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 근거는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한 주요국과의 금리차 축소에 있다. 주택을 비롯한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FRB는 2008년에도 상반기 중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7년 4분기와 2008년 1분기에 연방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2008년 2분기에 4.0%, 메릴린치는 3.5%까지 연방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경제의 부진 속에 내년도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경제대국 미국이 기침만 해도 세계경제는 독감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기여율도 2003년 30.8%에서 2006년 23.6%로 낮아졌다. 각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도 많이 줄었다. 이러다보니 세계경제는 미국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되, 그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프트 디커플링'을 경험 중이다. 따라서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3% 중반의 비교적 무난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디커플링의 정도에 따라 성장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반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이머징마켓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한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유로지역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최근의 신용경색 영향으로 은행간 금리 수준이 상승한 가운데 유로화 강세, 美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불안으로 현재의 금리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택경기 부진 등에 따른 가계소비 둔화 가능성이 있고, 企業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출시장의 위축에 따른 주택경기 냉각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내수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가파른 유로화 강세는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를

1) MBA(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제한해 경기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일본경제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엔캐리 자금 청산 및 엔화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금융자산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지연이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동 등 자원수출국은 고유가 등으로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들 경제는 원유 및 원자재 가공품 생산을 위한 투자확대가 성장에 일조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對美수출 둔화가 성장을 제약하겠지만 올림픽 特需로 10%대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아 경제는 중국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7%대 초반의 성장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구 분	2006년	2007년(E)	2008년(E)
세계경제 (시장환율 기준)	5.4 (3.8)	5.2 (3.5)	4.8 (3.3)
미 국	2.9	1.9	1.9
유로지역	2.8	2.5	2.1
일 본	2.2	2.0	1.7
중 국	11.1	11.5	10.0
아 시 아	7.9	8.0	7.2
원유 수출국	6.7	7.0	6.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 10.

내년도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가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선,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버블붕괴 가능성이다. 최근 이머징 마켓 국가의 증시가 급등세를 지속함에 따라 버블형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견조한 경제성장세, 역사적 고점 대비 낮은 주가 수준, 완만한 대출 및 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버블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빠져 나온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국가로 유입되어 빠른 속도로 자산 버블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누구도 임박한 위기를 예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머징마켓 투자는 점차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 노출도를 고려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의 수요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아시아 경제는 중국 등 역내 수요가 보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여타 국가는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달러 약세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 약화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타 주요통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유로화는 유럽 지역의 통합통화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로서는 약점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통화로서의 기능 확대는 가능하다. 엔화는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일본 가계의 해외투자 자금을 합치면 0.5~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위안화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장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의 낙후와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통화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장래 동아시아 역내 통화통합이 진전된다면 위안화는 유력한 기축통화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에 달러 패권시대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위상 약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경제와 달러화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은 대미 수출 둔화와 달러 표시 자산의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세계 기축통화의 변화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의 보유통화 비중을 다변화하고 무역결제 통화의 비중을 분산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 통화통합 논의 확대에 대비하고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필요한 한국경제로서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지역 다변화 정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자원수출국과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자원수출국과 신흥국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내구소비재와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용 기자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수가격이 저렴해진 선진국 기업의 M&A를 통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해야 한다. 샌드위치 위기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로서는 내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FTA, 한 - EU FTA에 이어 중국, 러시아, 중동 산유국 등과의 FTA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IR

▶▶ 제71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2008년 주요 경제이슈와 증권시장 전망

김 영 익 하나대투증권 리서치본부장

2008년 주요 경제이슈와 증권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4가지 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 측면에서 볼 때, 세계경제는 1980년 이후 평균 3.5%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과거보다는 높은 4% 대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이유로는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되는 중국(11%) 및 서비스업 중심의 인도(9%)의 고성장과 일본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등의 아시아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세계경제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내경제는 2007년 1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2분기부터 회복되어 연간 4.9% 성장이 전망되고 내년에는 4.7~4.8%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4.5% 안팎의 저성장(안정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과거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연간 40~50%의 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년 내에 추가적으로 약 50%의 주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그러한 예측이 예상대로 된다면 2009년 중에는 3,000P 시대의 도래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주식시장은 1980년대 일본의 주식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저성장(안정성장) 속에 완만한 주가상승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가격 측면을 살펴보면, 국고채수익률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5%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4년 3.2%를 저점으로 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5.4%, 2009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적정금리인 6%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5~10%대의 조정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6개월 내에 2,200P의 도달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가격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완만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이러한 상승세는 2009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세계적으로 자산에 대한 버블이 꺼질 수 있는 국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과거보다 높은 것은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에 속해 있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내수가 견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2~3% 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6~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Shift)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19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소비자로서, 중국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중국이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내 서브프라임 등 부동산 발 위기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1%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이지만 구매력기준으로 볼 때 국민소득이 5,800달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넘어서면 소비주체로 보는 것이 세계적 관례이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 생산자에서 지금은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의 원자재 가격상승과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유가상승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유가상승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내년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주가와 유가의 상관관계가 플러스를 보여 단기 주식시장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등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어 2005년 기준으로 140%를 넘어서는 등 소비위축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이 감소되고 중국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수출구조도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중심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2006년 대중국 수출비중은 27.2%, 미국은 13.3%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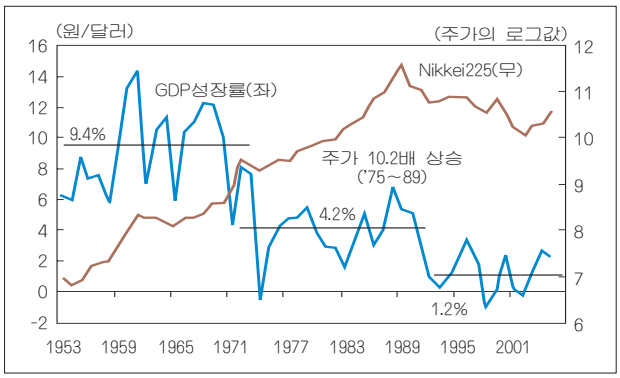
▣ 국내경제 전망

2007년 국내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4.9%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을 보면 2007년 2분기 성장률이 5.0%, 4분기 5.4%로 연간 평균 4.9% 정도로 예상되며 2008년은 이보다는 조금 낮은 4.7%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도 2007년 4분기 4.5%로 전년동기 3.7%보다 0.8%p 높을 것으로, 통관기준 수출증가율도 2006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800원대도 예상되지만 4분기 916원, 2008년 918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고채 수익률도 2006년 3분기 4.8%에서 2007년 3분기 5.3%, 2008년 5.4%대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등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비중심의 패턴에 따른 대기업 과잉투자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양적 · 질적 구조조정(부채비율이 1999년 396% → 1996년 99%)과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기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기업대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계대출에 치중한 결과 아파트의 가격급등 등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대출 비중이 71.2%로 가계대출비중(28.8%)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2004년을 기점으로 역전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가계의 부실화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보다는 부채증가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가계의 차입대비 저축액이 84.5조원이었는데 2002년에는 마이너스 4.7조원을 기록하였다가 2003년 17.9조원, 2006년 44.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02년의 상황은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것은 기업대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65조원은 되어야 적정수준의 소비가 이루진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소비증가가 기대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소비증가는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경상수지 흑자와 금리하락에 따른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한 상황이고 환율하락과 유동성증가, 40대 인구비중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일본의 1980년대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성장에서 저성장(안정성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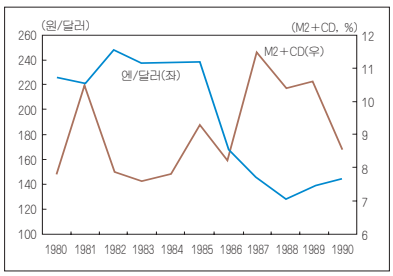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주가흐름 및 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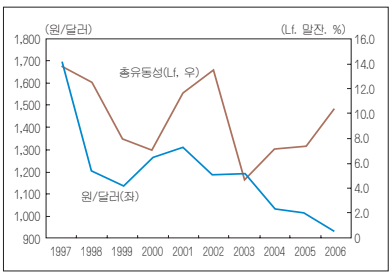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GDP성장률이 1973년 제1차 Oil Shock를 기점으로 1960~70년대 초반까지 9.4%대의 고성장에서 1975년부터 1989년까지 4.2%의 저성장으로 그 이후 1990년대 1.2%대의 안정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본의 주가는 10.2배나 상승하는 즉, 저성장속에서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살아남은 기업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저금리 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1998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의 국내유입을 증가

<그림 2> 일본의 1980년대 중반이후 환율과 유동성 추이



<그림 3> 한국의 1997년 이후 환율과 유동성 추이



시켜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함께 주가상승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이후 환율하락과 유동성 증가로 결국은 자산버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국내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1980년대와 유사한 또 다른 이유는 40대 인구비중이 확대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8년을 정점으로 40대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1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주가도 이와 연동하여 40,000P를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경우에도 1988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 40대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17%로 가장 높고, 이와 더불어 국내 주가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9년까지 10~20%대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3,000P의 시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가는 경기사이클(Business Cycle)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사이클의 선행지표로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우리나라 경기사이클은 과거보다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진폭도 좁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하락은 자금에 대한 수요도 감소되고 자금수요 감소로 인하여 금리와 채권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 저점에서는 주식매수를 경기 고점에서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사이클을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기수축국면인 경기침체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자금수요가 위축됩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것은 자금공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금리는 하락하고 주식보다는 채권가격 상승이 예상됨으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확장국면 중 경기회복기에는 투자 및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과 본격적으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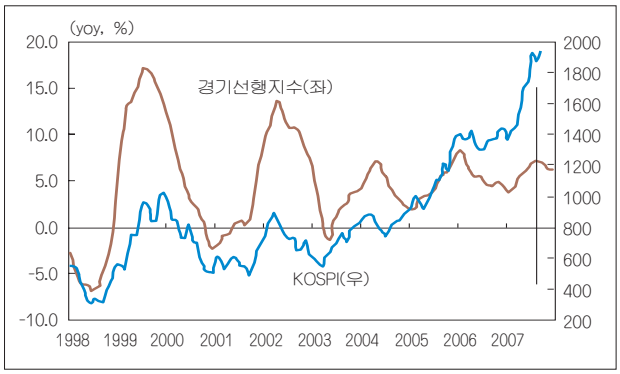
셋째, 경기확장국면 중 경기활황기에는 주식투자로 기업가치가 상승되고 이것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높여서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가계소비도 늘어나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상품가격의 상승과 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집니다.

넷째, 경기수축국면 중 경기후퇴기에는 전반적으로 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산수익률이 둔화되고 경제불확실성의 증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은행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경기싸이클은 4가지 국면이 서로 순환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있어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경기선행종합지수입니다.

이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서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 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07년 들어 1월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다가 9월 들어 그 흐름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4>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 및 주가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9월 이후에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 조정시기는 2008년 1~2분기까지이며 내년 3분기 이후에는 다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IR

제71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개최

제71차 조찬강연회가 10월 19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회원사 임직원 91명이 참석한 이날 조찬강연회에서는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증권시장을 조망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IR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8년 주요 경제이슈와 증권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부사장(리서치센터장)의 강연이 있었다.

2008 산업전망 세미나 주관

본회는 11월 2일 코엑스 태평양홀 세미나장에서 열린 "2008 산업전망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이 세미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국내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7 KRX 상장기업 엑스포'의 공식행사이다.

이날 세미나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2008년 경제 및 증시 전망과 15개 산업군의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설명회 주선 · 지원

기아자동차, 부산은행, 엘지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등 11개사가 지난 10월 12일 부터 11월 6일 까지 본회 주선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 언론기관, 개인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에 개최된 이들 기업설명회는 3분기 경영실적 및 기업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IR

금융위기

이 자료는 IR Magazine 2007년 10월호와 11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정리 · 번역한 것임. 〈편집자 註〉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시를 전망하거나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증시를 잘 예측한다는 전문가들이 내린 투자결정이 지금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었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펀드나 금융회사도 상처를 입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산업이 붕괴되면서 그 충격파는 지금 전 세계 경제로 전해지고 있다.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지금 서브프라임론 채무불이행과 '부채과잉' 현상이 미국 경제가 직면한 최악의 단기 위협으로 꼽고 있다. 이로써 2001년 9월 11일 이후 테러리즘이 지켜 온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주게 되었다.

이번 현상을 두고 장기 침체나 불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까? 사실 아직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하던 역동적인 경제 움직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Blue Marble Research에서 회장 및 국제 투자 스트래터지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Vinny Catalano는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의 시장은 확실히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시장에 활력을 주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활약도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뉴욕증권애널리스트협회의 전 회장이기도 했던 Catalano는 2006년 5~6월부터 시장의 생리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의 조정장세는 금융완화정책 해제(금융긴축정책)와 우연찮게 맞물려 일어난 처음 3번의 급격한 조정국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한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서브프라임 블루스

물론 이런 사태는 반복 되는 것이므로 아주 새롭지는 않다. 집값 버블이 붕괴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닷컴기업 붐과 앞으로 닥치게 될 부작용을 연상할 수 있다. 비교가 쉽지는 않겠지만 변동성이 커진 시장은 IRO에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지금 직접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확실히 달라졌고 당분간 그럴 것으로 여겨집니다. IKB 역시 지난 6월부터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고 지금 IR팀은 위기관리 모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라고 독일산업은행(IKB)의 IRO인 Rene Kantehm은 말했다.

Kantehm이 말하는 '위기' 란 IKB(뒤셀도르프 소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에 지나치게 노출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거대한 채무를 안게 된 상황을 뜻한다. 감독기관으로부터 나온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라는 경고와 함께 독일 정부 및 국책은행은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IR의 관점에서 본다면 IKB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우리가 내보내는 모든 보도자료와 공지는 자문 변호사가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투자자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로드쇼 일정은 다음 달까지 모두 취소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역시 연말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신용위기의 또 다른 피해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사모펀드에 의한 기업인수이다. 위기의 극복과 부활에 대한 기대 대신 사상 최대의 바이아웃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거대 에너지 업체인 TXU와 학자금 대출 업체인 Sallie Mae는 제시한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바이아웃이 진행되고 있고 Home Depot의 도매사업부문의 경우 당초 예상 보다 18억불을 할인하기로 했다.

사모펀드투자회사로부터의 공격 위기를 넘긴 기업의 한 IRO는 IR 모범규준을 재정립하는데 온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는 마케팅, 로드쇼, 컨퍼런스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 우리 경영진은 오늘도 투자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CEO가 작은 눈짓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늘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팽창한 헤지펀드의 경우를 비롯해 금융위기가 있기 전부터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한된 기회를 좇아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들이 변덕스러운 투자자를 달래는 일에 열심인 가운데 IRO는 지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직 SEC의 기업금융관련 일을 하던 Brian La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버블이 터지면 기업과 IRO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간이 늘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 야생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산업이 침체하면 서로 경쟁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게 됩니다.'

좋은 시절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만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Tiffany & Co.의 IR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Mark Aaron은 '만약 적절하고 효율적인 IR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금은 그것을 바꾸거나 할 시점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주가를 부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한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aron은 전략을 수정하거나 팀원을 교체하지 않았다. '월가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 하락장세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허둥지둥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장세를 조정으로 보지 않고 공황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 절대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안정감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애널리스트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부가정보를 제공해 그들을 돕지는 않을 것입니다.'

British Airways에서 IR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는 George Stinnes는 시장과 산업이 침체된 시기를 이겨낸 노련한 IRO다. 그는 '만약 경기가 하향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침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IR과 관련해 바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 헤지펀드

Catalano에 의하면 지금의 시장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주요 특성이 있는데 둘 다 헤지펀드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헤지펀드입니다. 지난 5년간의 시장 행태를 보십시오. 상승곡선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단기간의 공격적인 주식 매각으로 인해 하향곡선은 가파릅니다. 이런 양면성은 주가가 떨어질 때 새로운 시장참가자가 나서서 군중심리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IRO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며 통제 가능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O는 시장참가자의 심리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Catalano는 시장 활동의 높은 상호관련성이 IRO에게는 큰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와 산업영역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IR 종사자들이 명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자산의 상호연관성은 결국 무한하게 될 것이므로 주가는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헤지펀드와 관계가 있습니다.'

Stinnes는 유동성이 변동성을 가중시키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헤지펀드는 변동성보다는 유동성을 가져다준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시장이 좋기만을 바랍니다. 시장에는 공격적인 성향의 헤지펀드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시장구성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중에도 단기 매매를 일삼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기다리는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게임 그 이상의 현실

일부 대기업들이 기업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가상공간으로 뛰어들었다.

Second Life를 통해 기업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성과을 기대할 수도 있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Sun Microsystems는 Second Life 속에 Sun Pavilion이라는

장소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기업의 최근 이벤트나 기술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는 가건물을 제작했다. Sun Microsystems에서 브랜드 및 광고부문 manager와 Second Life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Fiona Gallagher는 고객이나 미디어,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이 언제라도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몇몇 기업들도 Second Life에의 진출할 계획이 있고, 이는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다.

지금 Hewlett-Packard, Adidas, Reebok 그리고 Verizon 등의 기업도 이미 Second Life에 모습을 보였지만 많은 수의 IR 담당자들은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Second Life는 점점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MMORPG의 일종이다. 더 쉽게 말하면 수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Second Life에 등록된 현재 계정은 9백만 개에 달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동시 접속자 수는 25,000~45,000명 정도이다.

게임 속에서의 상업은 번성하고 있다.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the Linden dollar : 개임 개발자 Linden Lab의 이름을 따옴)가 있고 Linden dollar 270불 당 1불의 비율로 실제 화폐(the US dollar)와 교환 가능하다. 그리고 Second Life는 몇 개의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119만 불의 대금이 24시간 동안 거래되기도 했다.

계정을 만든 다음 게이머들은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그 아바타가 만화영화처럼 게임 속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게 된다. 물론 Second Life를 통해 실적설명회, 1:1 미팅, 제품 런칭 등을 기획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됐지만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IRO가 직접 가상현실 내에서 통용되는 ID를 받아서 스스로 아바타를 만들어 기존의 IR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가상공간은 아직도 공상과학의 분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일까?

▣ 실적 발표

소위 사회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류 언론을 통한 정보로 만족하지는 않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Cisco Systems의 엔지니어가 'Fortune 100' 고객사를 Second Life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Cisco의 경영진은 이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커뮤니케이션과 신매체 담당 임원인 Jeanette Gibson을 불러 들였다. 그 결과 Cisco는 Second Life 속에 실적발표 자료를 비롯한 풍부한 투자정보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Cisco는 4개의 섬(island)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econd Life에서 섬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1,600불이 들고 매달 라이선스 비용 300불이 드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수치라고 Gibson은 말했다. 네트워크 관련 업체는 이미 블로그나 포드캐스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이제는 Second Life를 흥미로운 차세대 표현수단으로 보고 있다. '신매체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한 자세를 갖게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Gibson은 밝혔다.

Second Life의 지지자들은 공개 기업들의 가상현실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Cisco가 Second Life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겠죠.' 라고 Greenberg & Lieberman(Washington, DC 기반의 법률회사)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Stevan Lieberman이 말했다. 그는 Second Life에서 이미 2명의 고객을 확보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컴퓨터 관련 업종이라면 우선 Second Life에는 당연히 진입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가상현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Cisco에서 IRO로 일하고 있는 Laura Graves는 IR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Second Life가 생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Second Life 속의 게이머들이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게임 속에는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ond Life는 분명 흥미로운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속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의 지분 및 투자성향을 알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지금 Cisco는 Second Life속에서 실적발표, 웹캐스트, 음성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IR활동의 일환일 뿐입니다.'

▣ 찬반양론

한때 언론의 사랑을 받던 Second Life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일부가 게임 진행에 어려움(아직 버그가 발견됨)이 있음을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위험성 있는 컨텐츠가 난무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타임지는 최악의 웹사이트 다섯 개 중

하나로 꼽았고 인포메이션위크지는 '지난 해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올 해는 양상이 좀 달라 보인다. 결국 Second Life의 참 면모는 기대와 실망 그 중간정도에 있을 것' 이라고 썼다.

만약 여러분이 Apple의 경영자로서 iPhone을 시장에 발표하고자 한다면 Second Life가 좋은 장이 되어 주겠지만 아직 대부분의 분기 실적발표에서는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해 전략이나 재무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기술발달에 힘입어 기회와 방법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응하는 태도를 볼 수는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

Second Life는 사이버 공간에 마련된 가상현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수많은 기회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IBM의 Chuck Hamilton은 Second Life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IBM은 가상현실 속에 아주 현실적인 기업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Multiverse.org나 ProtonMedia 그리고 Forterra 등에 진출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비록 '가상현실' 이나 '신세계' 라는 단어가 처음엔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기업 홈페이지가 발달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희석시키기도 한다. Second Life는 웹상의 최첨단 유저가 접속해 즐기는 3D 웹사이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IR

제7회 IR대회 · 한국IR대상 시상식 개최안내

본회에서는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국내기업들의 I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IR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제7회 IR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IR활동으로 기업과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인 IR우수기업을 선정 · 시상함으로써 IR활동을 진작시키고 올바른 IR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IR대상을 시상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7. 11. 23(금) 10 : 00~13 : 00**
⊙ **주 최 : 한국IR협의회**
⊙ **장 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본관 1층)**
⊙ **후 원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행 사 일 정 ❖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개 회 사	10:00~10:05	남 영 태(한국IR협의회 회장)	
축 사	10:05~10:10	옥 치 장(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한국IR대상 시상식	10:10~11:00	• 선정경과 보고 및 심사평	• 대상, 우수상, Best IRO상 시상
사례발표 및 토론	11:00~12:00	IR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사례발표 – 한국IR대상 수상기업	사례발표 내용 및 IR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 사회자 : 연 강 흠(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 사례발표자 및 Best IRO
폐 회	12:00		
식후 행사	12:00~13:00	음료 및 다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과제

정 관 용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1]를 발간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2006년말 현재 약 2,300여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현대자동차, 삼성SDI, 한화석유화학 등 4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2007년 10월 현재 약 40여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을 준비 중인 기업도 많이 있어 연말에는 50여개 이상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속가능발전과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논의 급진전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1] 개념이 대두된 배경과 글로벌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0년 이후 물질적 풍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해 환경 위기론과 이에 따른 미래에 인류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등장하였다. 1968년 폴 에를리히의 '인구 폭탄',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 및 월드워치 연구소가 1984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지구환경 보고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삶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제', '환경', '사회' 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태동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기업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80년대 사후오염처리 중심에서 90년대에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에코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환경경영이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등 환경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또한 진일보하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시민주의에 입각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주창하며 만든 'UN 글로벌 콤팩' 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9년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ISO 26000)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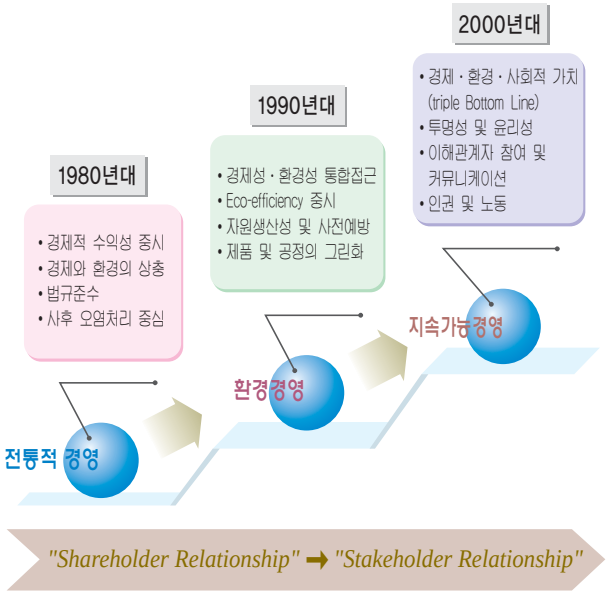
1) 지속가능보고서란 기업이 한 해동 안 이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즉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주주,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

2) 지속가능발전이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으로 정의되며, 1987년 노르웨이의 브룬트란트 수상이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 란 보고서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개념을 공식 제기한 이후, 1992년 리우 정상회담,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정 발전되었음.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을 도외시하거나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은 고객이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외면을 받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도 90년대의 환경경영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속가능경영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코자 하는 기업은 종종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혼란과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과 그 궤를 같이 하듯이,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위기 관리 및 기회 발굴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접근법' 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에 기업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업 활동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재조정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과 비전을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에 비추어 나아갈 바를 지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적 측면이나, 아동노동, 인권, 투명성 등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에 기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라이프지에 12세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꿰메고 있는 사진이 실린 이후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인해 50여개 나이키 매장이 공격을 당했으며, 98년에는 나이키의 수익이 69%나 급락했고, 13년 만에 영업손실을 당해 직원 1,600명을 해고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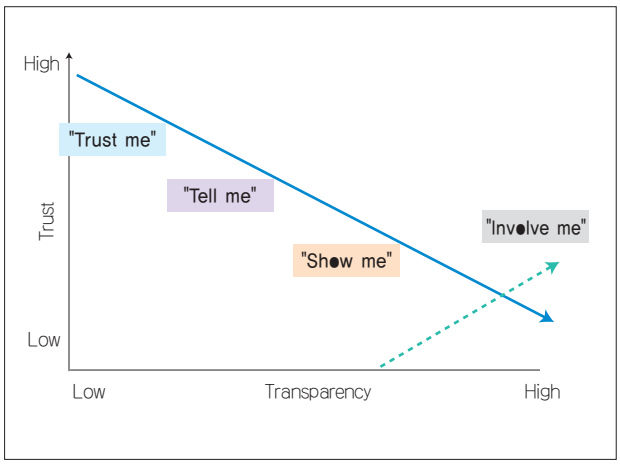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로 발전 중

전세계 145개국에 116,0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다국적 에너지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 선진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Shell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5년 북해의 오일사고, 환경과 인권 문제에서 발생한 나이지리아 사업장의 파업 등이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Shell은 환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중요성에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 후 Shell은 경제 · 환경 · 사회 부문이 통합된 경영원칙을 전사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면서 경제 · 환경 · 사회 관련 이슈는 단순히 경영(Management)의 대상이 아닌 기업의 가치(Value)와 원칙(Principle)으로 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Shell은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루면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체득하였다. 이해관계자의 니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답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참여' 를 통해 진정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Shell의 이해관계자 관리



과거에는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단순히 자사를 믿어달라고 하거나 혹은 해명만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공헌에 대한 투자 등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참여는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998년 용인 죽전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지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터로 닦으려는 토지공사에 맞서 지역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는 나무 위 시위로 이어지고 결국 건교부의 대지산 보존 방침을 이끌어 냈지만, 갈등의 골은 매우 깊었다. 그러나 그 이후 토지공사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지산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생태공원으로 완공한 사례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한 사례라 하겠다. 이외에도 청주 원흥이 방죽 사례나 라파즈한라시멘트와 백두대간보존회간의 협력사례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서로의 진정성을 회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과제

지속가능경영이 포괄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기업은 자사의 비즈니스 영역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여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면서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이슈가 중요하며, 그에 따른 자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그들 이해관계자가 중요시하는 이슈는 또한 무엇이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슈가 선정되면, 해당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제품 회사라면 협력업체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즉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시스템과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협력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슈도 A 기업의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전 모 전자제품 회사의 전기밥솥이 폭발하는 바람에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전기밥솥 사업에서 손을 뗀 사건이 있었다. 폭발의 원인이 되었던 부품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는데, 전기밥솥 사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협력업체에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시도해야

앞서 밝힌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성과와 과제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피드백 받아 경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기업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며,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담아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이란, 한 마디로 올바르게 경영하는 것이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회사가 되고(Good Reputation), 고객과 소비자가 더 많아져서 결국 기업의 가치(Value)가 된다고 믿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Shell의 언급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IR

직장인을 위한 한글 맞춤법 교실 (44)

문법에 맞게 표현하기

성 기 지 한글학회 연구원

논리에 맞는 글쓰기를 할 때에나 공문서를 쓸 때에는 어느 정도의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 국어 문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공문서의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므로, 문법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공문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문법적 표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

먼저, 문장을 마치는 서술어 자리에 명사를 가져다 놓는 바람에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게 되어 버린 사례를 보자.

(1) 신규 및 전체 현황에 불포함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만 포함
→ 신규 및 전체 현황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추진 계획에만 포함함.

이 문장에 쓰인 '불포함' 이란 말은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 말은 '포함하지 않고' 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문장은 "신규 및 전체 현황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추진 계획에만 포함"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완전한 표현은 아니다. 서술어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명사를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서술어 자리에 있는 '포함' 을 동사 '포함하다' 로 바꾼 뒤에, 종결어미를 붙여 '포함함' 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만 포함" 을 "향후 추진 계획에만 포함함." 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때에 '함' 다음에는 반드시 온점을 찍어서 문장을 마쳤다는 표시를 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예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다.

(2) 자동계정 처리로 영업점에서의 별도 조치 불요
→ 자동계정 처리로 영업점에서의 별도 조치 불요함.

이 문장에서도 역시 "자동계정 처리로 영업점에서의 별도 조치 불요" 라는 문장에 종결어미가 빠져 있다. 게다가 '불필요하다' 는 뜻을 가진 형용사 '불요하다' 는 명사처럼 '불요' 만으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형용사의 어근만 따로 떼어서 서술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된다. 종결어미를 붙여서 "자동계정 처리로 영업점에서의 별도 조치 불요함." 이라고 바로잡아야 하겠다.

공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가운데에는 존칭이 잘못된 사례가 눈에 많이 띈다.

(3)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담당자께서는 숙지하시어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담당자께서는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어간 '-시-' 를 남용한 데다가, 아주높임의 호응 관계까지 맞지 않아 문법에 어긋난 사례이다. 문장 속에서 연결어미를 극존칭인 '하오니' 를 쓰면 서술어 또한 같은 급의 '하옵니다' 로 써야 호응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하옵니다' 와 같은 표현은 공문서에서 쓰기에 알맞지 않다. 따라서 공문에서는 연결어미에 '하오니' 와 같은 말투를 쓰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존칭 보조어간 '-시-' 는 문장의 맨 마지막 서술어에만 쓰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다. 밑줄 친 '숙지하시어' 는 '숙지하여' 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아, 그 말이 그렇구나!… '야매' 라는 말

언론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 가운데 '야매' 라는 것이 있다. 이름난 연예인들이 '야매' 로 얼굴을 뜯어 고쳤다는 것이다. 서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써 오기도 한 이 속어는, '뒷거래, 음지, 불법' 등의 뜻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 말은 일본말 '야미' (やみ 暗)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를 겪은 세대가 '어둠' 이란 뜻의 일본말 '야미' 에 우리말 '-하다' 를 붙여서 '야미하다' 라고 해 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야매하다' 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자말 '야매하다' (野昧一)는 '촌스럽고 어리석다' 는 뜻이지, '뒤에서 몰래 하다' 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본디의 일본말을 되찾아 '야미' 로 고쳐 쓰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노릇이다. 이 기회에 이 말을 우리말 '뒷거래' 로 순화하여 쓰면 어떨까?

고려개발(주)의 IR 활동과 전략

김 진 성 기획팀 과장

▣ Since 1965, 42년 역사의 고려개발

1965년 설립된 고려개발은 도급순위 25위의 종합건설업체로 지난 40여 년간 국내 건설업계의 선구자로서 국가 경제 개발의 여명기를 앞장 서 달려왔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중동지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의 수많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KDC'(Korea Development Corp.)라는 이름을 확고하게 각인시켰고, 국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사업에 참여하여 국토의 대동맥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또한, 바다를 메워 도시를 건설한 거제도 고현만 매립사업 등 대규모 택지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한국 건설 산업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SOC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산항 개발,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에 참여 중이며, 평택항 양곡부두,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등의 사업에서는 주간사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그 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개발은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경전철 분야에서도 앞서나가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 경전철, 용인경전철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명경전철 사업의 주간사로서 신교통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의 오피스텔 건축에서부터 e-편한세상까지

고려개발은 1985년 국내 최초의 오피스텔을 선보인 이래, 줄곧 우리나라 건축 문화를 선도하며,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건축문화의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천경마장 관람대, 인천법원청사, 대전교원회관 등의 주요 공공건축물 공사를 성공적으로 시공하였고, 주거부문에서는 e-편한세상, 아크로타워 등의 시공으로 고품격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기치아래, 부천춘의테크노파크, 수원영통 디지털 엠파이어 등의 아파트형 공장 사업분야를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건축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최신설비의 강교공장, 고려개발 철구사업소

충남 부여에 소재한 고려개발 철구사업소는 연 50,000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강교 전용 생산공장입니다. 일반강교는 물론 특수강교와 해상구간의 강교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주정보부터 견적, 계약, 제작 및 설치까지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산대교, 압해대교 등의 특수해상 강교 공사를 수행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고려개발의 기술력

고려개발은 이러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하는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 들어서도 경기도 선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업KOSHA 18001 인증 그리고 건설협력증진 추진대상 건설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정보화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1999년부터 6년 연속,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CIC인증(Certified Informatization Company)을 획득하는 등, 건설업계 최고의 정보화 선진기업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인터넷 구매외주시스템 이스피드넷(eSpeedNet)을 운영하여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EVMS를 기반으로 한 CIM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기반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는 최근에 기업경

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건설회사

고려개발은 앞으로도 신뢰경영의 실천과 시공기술의 가치창조, 무본사 구현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주중심의 투명경영과 수익위주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주에게는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고객에게는 인간중심의 공간을 제공하여 가장 신뢰받는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임직원에게는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그리고 많은 협력업체와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통해 "풍요로운 건설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려개발의 지난 40여년 간의 발자취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한 하나의 거대한 역사로, 앞으로도 회사의 비전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건설회사"를 실현하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IR 활동방향 및 전략

고려개발의 IR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IR 런칭은 2005년 이후입니다. IR활동의 초기에는 시장의 관심끌기가 급선무였으며, 중소형 건설주로서의 IR자리매김이 가장 중요한 Issue 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 건설주 위주의 시장형성으로 중소형 건설주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체개발사업인 용산 아크로타워 사업의 전개와 더불어 비로소 시장의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IR활동은 애널리스트나 매니저의 기업탐방에 따른 소극적인 일대일 미팅이 전부였으나, 점차 IR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의 전환으로 비로소 자체적인 기업설명회를 통한 분기실적 발표, NDR을 비롯한 해외 IR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핵심사업인 천안종합휴양관광지에서 Site Tour 를 실시하여 기관투자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중소형건설주에서 특화된 사업 즉, Asset player로서의 강점을 가진 회사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은 IR전략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현재의 건설경영환경을 "Red Ocen"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Blue Ocean"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단순한 도급수준을 벗어나, 토목에서는 기획개발형사업인 민자SOC

천안종합휴양관광지 항공사진 - 충남 천안시 목천T/G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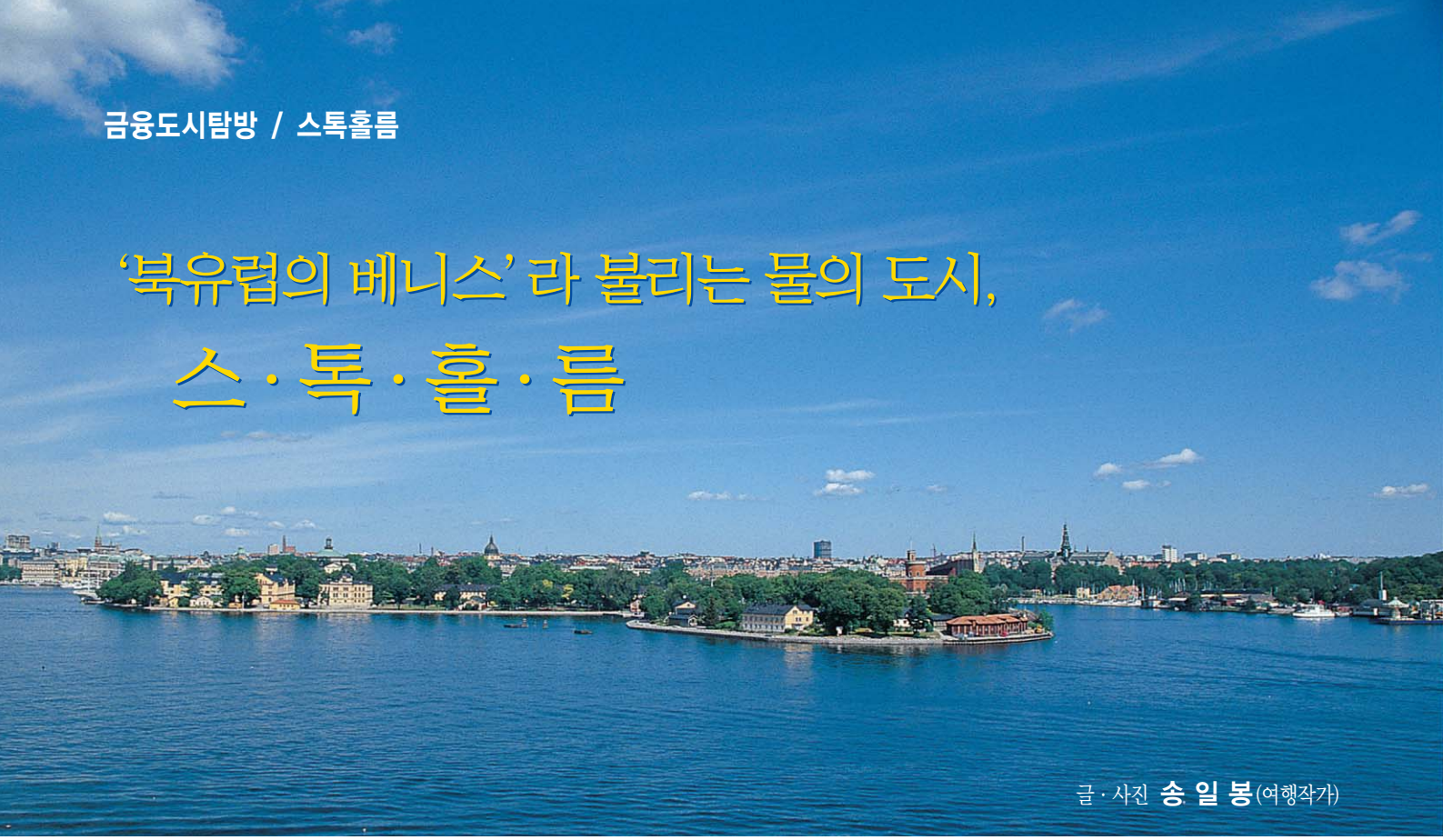
사업, 건축에서는 보유토지를 활용한 자체개발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건설회사와 비교해 볼 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IR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IR Target 설정이라고 봅니다. IR을 시장 참여자 간의 끊임없는 Cummunication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개발은 회사의 규모와 고유한 비지니스 구조 및 핵심역량을 선호하는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Target Audience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Cummunication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R 대상을 전략적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접근과 진실된 대응은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개발은 IR을 과거 단순한 기업실적에 관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로서의 "Share"로 정의하고 기업투명성, 신뢰성, 주주중시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접근한다면 IR의 근본 목적인 기업가치 극대화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IR

기업설명회 주선 및 지원 안내

- **IR 행사장 제공**
  - IR 행사장 무료 제공 및 주선
-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사 등 참가 안내**
- **행사 진행 및 자료작성 상담**
- **기자재 제공**
  -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 **행사 소품 제공**
  - 현수막, 입간판, 명패, 명함볼 등
- **디지털 IR 지원**
  - 컨퍼런스콜 및 웹캐스팅 업체 소개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리는 물의 도시, 스·톡·홀·름

글·사진 **송 일 봉**(여행작가)

스톡홀름 이미지

많은 섬과 호수로 이뤄진 스웨덴은 북유럽 제 1의 공업국이다. 예전에는 펄프와 제지산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현재는 금속, 기계, 수송기계(조선, 차량제조) 등의 중공업이 스웨덴 공업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트럭제조업체인 볼보, 가구업계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이케아(IKEA), 종이용기와 포장기계를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인 테트라팩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유럽지역의 증권시장은 유로넥스트(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시장합병을 통해 탄생)가 주도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OMX라는 매개체 아래 북유럽 지역의 시장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OMX의 탄생은 2003년 스톡홀름거래소와 헬싱키거래소의 합병을 시발점으로 한다. 회사명은 스톡홀름거래소의 지주회사였던 OM과 헬싱키거래소의 약자인 HEX를 합쳐 OMHEX로 했다. 그 후 회사명을 OMX로 변경하고 사업부를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OMX Exchanges와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OMX Technology 등으로 편성했다. 또한 2005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거래소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북유럽 증권시장의 통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은 일명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물의 도시다. 도시 자체가 크고 작은 1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해 다듬어진 도시답게 각각의 섬들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섬과 섬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어 버스를 타거나 또는 걸어서 여러 섬들을 돌아볼 수 있다.

스톡홀름을 처음 찾는 여행자들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이 도시에 대한 첫 이미지는 '깨끗함'과 '평화로움'이다. 수백 년 전에 조성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래된 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축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스톡홀름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톡홀름 중앙역 근처에 있는 시청사는 스톡홀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스웨덴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르게 되는 관광명소다. 106m 높이의 뾰족탑이 매우 인상적이며 붉은 벽돌의 건물 외관과 아름다운 고딕식 창문이 멜라렌 호수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80여년 전인 1923년에 세워졌는데도 전혀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마치 옛 성이나 궁전처럼 보이는 외관때문인지는 몰라도 여행자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무려 1,900만 개의 금박으로 모자이크를 한 '황금의 방'은 시청사의 명물. '멜라렌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황금 모자이크가 특히 유명한데, 해마다 12월 10일이면 이 방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위한 무도회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행자들은 물론이고 스톡홀름 사람들이 무엇보다 애착을 가지는 명소는 감라스탄이다. 현대적이면서도 다소 세련미가 흐르는 스톡홀름에서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리고 닳고 닳은 바닥돌 등에서는 13세기 무렵 이곳에 살았던 중세 사람들의 체취를 실감할 수 있다. 현재는 예전 건물들 대부분이 기념품 가게나 카페, 갤러리 등으로 개조되어 있지만, 스톡홀름의 색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행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명소다. 이곳에 있는 폭 90cm의 골목길은 스톡홀름에서 가장 좁은 길이기도 하다.

1. 스톡홀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시청사
2.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
3. 스톡홀름과 헬싱키를 오가는 유람선
4. 배의 모형을 본 딴 바이킹 박물관

감라스탄 북쪽에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인 왕궁이 자리 잡고 있다. 60여년의 오랜 공사 끝에 1754년 완공된 이 왕궁은 스웨덴 왕실의 서민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다. 왕들의 보물을 전시해 놓은 보물의 방이 유명하다. 보물의 방에서는 700여 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에릭 14세의 화려한 왕관도 볼 수 있다. 네덜란드풍의 르네상스 건축물인 이 왕궁은 스톡홀름을 찾아오는 국빈을 접대하는 만찬회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스웨덴 국왕이 사는 곳은 스톡홀름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있는 드로트닝홀름 궁전이다. 궁전 내부에 있는 궁정극장은 18세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극장으로 유명하다.

감라스탄과는 반대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세르겔 광장 역시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전쟁이라든가 인권과 관련된 집회가 수시로 열리는 이 광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문화회관이다. 약 160m 높이의 유리 파사드가 유명한데, 이 파사드를 만드는 데는 무려 8만장의 유리 조각이 소요되었다 한다. 여름에는 이곳에서 출발하는 왕궁의 위병행진을 볼 수도 있다.

숲과 호수의 나라, 스웨덴

유럽의 북쪽 끄트머리. 그곳에 길이 1,850m, 면적 77㎢에 이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에게는 '바이킹' 또는 '백야'라는 이미지가 짙게 배어 있는 신비스런(?)곳이다. 얼핏 보기에 삐죽 튀어나온 '게의 발'처럼 생긴 이 반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자연스레 국경을 이루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래쪽은 덴마크, 스웨덴 오른쪽에는 핀란드가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끼고서 일종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북유럽 4개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스웨덴이다.

북유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난히 숲과 호수가 많다는 것이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짙푸른 숲과 맑은 호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처럼 오염되지 않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여행자들은 대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된다.

스웨덴은 많은 섬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나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인 잉그릿드 버그만과 그레타 가르보도 이곳 스웨덴에서 태어났으며, '닐스의 이상한 여행'의 저자인 셀마 라게를뇌프와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도 스웨덴 출신이다.

스웨덴 남부의 스모란드 지방에는 '유리의 왕국'이라 불리는 유리공예의 중심지가 자리잡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유리공장은 코스타이다. 대부분의 유리공예품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름다운 색채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스웨덴 사람들은 지금도 생일이나 결혼식 때 유리공예품을 선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다.

Proposal 제안서 쓰기

본 코너는 YBM Sisa.com (www.ybmsisa.com) e4u사이버어학원에서 제공하는 〈Power Biz Writing〉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문 제안서(Proposal)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Point

제안서란, Proposal(제안서)은 특정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수락, 허가 등을 얻어내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proposal의 내용에 불문하고 모든 proposal documents는 이를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Sample Writing

Date
Name/Title
Business/Organization
Address
City, State Zip Code

Dear Name,

Enclosed is the business proposal for a feasibility study you requested at our meeting in New York last week. I am sure you will agree that it covers all the relevant points we discussed at the meeting. I believe that such a feasibility study would offer your company the tools to make a balanced decision on the value of the Luxury Apartment Project in Florida.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ur firm would also be pleased to advise your company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as outlined in our proposal.

Please let me know your opinion to our proposal so that we may plan our time schedules accordingly. If you have any questions, I will be happy to answer them.

Sincerely,
Signature
Name

날짜
이름/직책
사업체/단체 이름
주소
도시명, 우편 번호

안녕하세요.

지난 주 뉴욕 모임에서 귀 회사가 제안한 예비조사에 대한 비즈니스 기획안을 여기에 동봉합니다. 이 기획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제반사항에 대한 요점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비조사는 귀사가 플로리다에서 계획중인 고급아파트 신축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기획안 제안대로 이런 계획들을 수행하는 동안 귀사에게 아낌없는 협조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귀사가 우리의 비즈니스 기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일정을 계획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명
이름

Proposal 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일반적인 문서와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배울 표현들을 익히면 좋은 proposal 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Various expressions : 제안서에서 주로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봅니다.

I am sending you a report/proposal on (Report title), in response to your recent request for proposals.

➜ 최근 당신의 요청에 응하여 (리포트 제목)에 대한 제안서를 보냅니다.

Our objective was (summary of objectives and scope).

➜ 우리의 목표는 (목표와 범위의 요약) 이었습니다.

Based on our previous experience in (type of work your company is involved in), we recommend that (summary of main points in the report, including methodology and procedure).

➜ 저희 회사의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서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리포트의 중요한 요점을 요약)을 추천합니다.

We anticipate that (estimated cost and time required).

➜ 저희는 (측정된 경비와 소요시간)을 예상합니다.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have further enquiries. I will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about the proposal.

➜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제안서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기꺼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The enclosed business report represents a comprehensive plan to put your distribution department back on firm ground.

➜ 동봉한 비즈니스 보고서는 귀사의 판매조직이 확고하게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Tip]

proposal n.	신청 ; 제안 ; 계획, 안(案)	relevant a.	(당면 문제에) 관련된 ; 적절한 (to)
feasibility n.	실행할 수 있음, (실행) 가능성	implementation n.	이행, 실행 ; 완성 ; 충족

이 자료는 지난 1개월동안 발표된 애널리스트 리포트중 회원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의견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투자의견에 대해 적극매수 5포인트, 매수 4포인트, 중립 3포인트, 매도 2포인트, 적극매도 1포인트를 부여하여 평균한 것임.

※회사명 다음의 ⓐ는 액면가 100원, ⓑ는 200원, ⓒ는 500원, ⓓ는 1,000원, ⓔ는 2,500원, 무표시는 5,000원을 나타냄.

FnGuide 자료제공

회 사 명	투자의견수	투자의견(포인트)		추정EPS(원)		적정주가(원)		전월말 종가(원)	적정주가 대비(%)
		평 균	전월대비	평 균	전월대비	평 균	전월대비		
경남기업	3	4.00	0.00	2,605	-208	61,867	a4,267	57,100	92.3
경동가스	0	4.00	0.00	7,372	0	92,000	0	60,900	66.2
계양전기 ⓒ	0	4.00	0.00	211	0	2,700	0	3,085	114.3
고려개발	3	4.00	0.00	4,071	38	40,167	-683	30,200	75.2
고려아연	13	4.10	-0.10	24,455	-1,461	245,154	-10,846	180,000	73.4
광전자 ⓒ	0	4.00	0.00	785	0	6,500	0	3,310	50.9
교보증권	0	4.00	0.00	1,381	0	21,000	0	20,300	96.7
국민은행	16	3.70	0.00	8,434	-165	94,047	-641	73,200	77.8
글로비스 ⓒ	3	4.00	0.00	2,613	4	95,667	19,667	78,900	82.5
금호산업	5	4.00	0.00	3,055	-1,790	90,660	9,660	82,500	91.0
금호타이어	8	3.60	0.00	135	-261	18,071	-1,196	14,200	78.6
기아차	13	3.50	0.00	205	-255	13,700	-1,914	10,350	75.5
기업은행	10	3.80	-0.20	2,974	-87	23,556	-1,944	18,300	77.7
남광토건	1	4.00	0.00	1,118	0	22,000	-1,500	14,050	63.9
남해화학 ⓓ	2	4.00	0.00	571	0	17,150	0	17,250	100.6
네패스 ⓒ	3	3.30	-0.40	669	-118	10,700	-4,400	7,210	67.4
농심	6	3.30	-0.40	17,720	-2,359	267,667	-26,000	199,000	74.3
농심홀딩스	0	3.00	0.00	14,022	0	99,000	0	84,500	85.4
대교	5	4.00	0.30	6,735	526	122,800	-2,200	91,700	74.7
대구은행	13	3.70	-0.10	2,127	20	20,142	-841	15,800	78.4
대덕전자 ⓒ	0	3.00	0.00	517	0	7,500	0	6,850	91.3
대덕GDS ⓒ	0	3.00	0.00	868	0	10,500	0	8,010	76.3
대림산업	12	3.90	-0.10	10,641	-63	226,117	16,950	195,500	86.5
대상 ⓓ	2	3.50	0.00	534	-126	15,900	1,150	13,550	85.2
대성산업	0	4.00	0.00	11,164	0	350,000	0	230,000	65.7
대신증권	7	3.90	0.20	3,022	-85	38,686	-434	27,750	71.7
대우건설	11	3.90	0.00	2,620	13	34,330	-213	25,800	75.2
대우인터내셔	0	4.00	0.00	1,183	0	53,333	0	37,900	71.1
대우조선해양	8	4.00	0.00	2,133	-142	70,500	2,329	56,500	80.1
대우증권	6	3.80	-0.20	2,334	127	36,667	-2,619	26,350	71.9
대원강업	2	3.00	-0.50	2,309	390	24,000	500	25,650	106.9
대한항공	12	4.00	0.00	2,448	285	98,567	9,567	78,300	79.4
덕성 ⓒ	0	4.00	0.00	374	0	6,500	0	2,980	45.8
동아제약	7	3.90	0.70	136	-	112,714	-10,286	86,600	76.8
동양종금증권	3	4.00	0.00	1,515	-148	24,000	-1,000	20,300	84.6
두산건설	2	4.00	0.00	1,311	245	23,050	2,550	19,300	83.7
두산인프라코어	1	4.00	0.20	1,462	-78	38,000	475	37,800	99.5
두산중공업	6	3.80	-0.20	3,580	337	157,080	34,080	164,500	104.7
메리츠화재 ⓒ	12	4.00	0.00	988	127	13,492	1,342	13,000	96.4
보령제약	0	3.50	0.00	3,541	0	64,000	0	48,000	75.0
부광약품 ⓒ	3	3.70	-0.30	1,394	200	42,000	5,000	38,500	91.7
부산은행	17	3.90	-0.10	1,918	82	20,125	1,425	16,000	79.5
삼광유리	1	4.00	0.00	3,035	248	82,000	18,200	49,800	60.7
삼성물산	8	3.80	-0.20	2,780	62	85,038	11,398	82,400	96.9
삼성전기	18	3.90	0.00	1,540	-33	72,024	4,253	58,900	81.8
삼성전자	19	3.80	0.00	43,834	-2,210	668,789	-79,120	550,000	82.2
삼성정밀화학	1	3.00	-1.00	1,862	45	65,000	10,000	67,500	103.8
삼성중공업	8	4.00	0.00	2,297	80	65,975	9,325	53,700	81.4
삼성증권	13	3.90	-0.10	6,265	291	123,938	21,305	111,000	89.6
삼성카드	1	4.00	0.00	4,485	-388	85,000	0	62,100	73.1
삼성화재 ⓒ	14	3.90	0.00	9,410	267	239,762	15,984	249,000	103.9
삼성SDI	15	3.10	0.00	394	-	69,692	4,192	72,000	103.3
삼양사	1	4.00	0.50	4,512	2,049	66,000	-16,250	63,800	96.7
삼우이엠씨 ⓒ	0	3.00	0.00	930	0	5,300	0	4,195	79.2
삼익THK ⓒ	0	4.00	0.00	668	0	6,000	0	3,550	59.2
삼천리	0	4.00	0.00	15,293	0	238,333	0	296,000	124.2
삼호	1	4.00	0.00	3,402	42	47,000	10,500	29,950	63.7
성신양회	0	3.50	0.00	312	0	27,500	0	14,600	53.1
성우하이텍 ⓒ	4	4.00	0.70	825	-1	10,350	-425	6,460	62.4
세원셀론텍 ⓒ	1	4.00	0.00	519	-1	15,000	0	9,870	65.8
신세계	16	3.90	0.00	27,498	229	785,733	53,433	705,000	89.7
신한지주	9	4.00	0.00	6,662	-25	74,411	1,567	58,400	78.5
쌍용차	6	3.50	0.10	222	-80	8,050	430	6,300	78.3
아모레퍼시픽	7	3.60	-0.40	29,912	-1,057	956,286	205,286	857,000	89.6
애경유화	1	4.00	0.00	3,261	0	64,600	0	51,100	79.1
에스원 ⓒ	5	4.00	0.00	2,846	165	68,880	4,513	59,900	87.0
엑큐리스 ⓒ	0	4.00	0.00	243	0	2,000	0	720	36.0
예스코	0	3.00	0.00	4,127	0	32,000	0	38,550	120.5
오뚜기	1	4.00	0.00	12,643	-	230,000	0	149,000	64.8
우리금융	6	3.80	-0.20	3,054	-17	27,800	-1,811	19,500	70.1
우리투자증권	7	3.90	-0.10	2,351	-10	34,800	-3,675	27,300	78.4
우영 ⓒ	0	4.00	0.00	583	0	5,100	0	1,860	36.5
웅진코웨이 ⓒ	1	4.00	0.50	1,525	-9	40,000	3,000	34,200	85.5
웅진홀딩스 ⓒ	0	4.00	0.00	1,396	0	28,700	0	26,600	92.7
원익 ⓒ	2	4.00	0.00	812	-	12,800	-9,500	6,590	51.5

회 사 명	투자의견수	투자의견(포인트)		추정EPS(원)		적정주가(원)		전월말 종가(원)	적정주가 대비(%)
		평 균	전월대비	평 균	전월대비	평 균	전월대비		
유한양행	7	4.00	0.00	10,709	-153	240,743	2,943	192,000	79.8
이수화학	0	4.00	0.00	1,537	0	11,300	0	12,950	114.6
인지컨트롤스 ⓒ	0	4.00	0.00	838	0	9,150	0	6,400	69.9
일동제약	0	4.00	0.00	5,138	0	55,000	0	44,300	80.5
자화전자 ⓒ	0	3.00	0.00	319	0	7,500	0	5,600	74.7
전북은행	5	3.40	-0.30	782	-47	10,000	-1,333	8,650	86.5
제일기획	14	3.90	-0.10	13,655	-5,254	333,857	-9,476	259,000	77.6
제일모직	10	3.70	-0.10	3,401	-21	66,000	900	59,000	89.4
종근당 ⓔ	3	4.00	0.00	1,972	-38	35,333	-3,467	24,500	69.3
주성엔지니어 ⓒ	8	4.00	0.20	1,302	225	30,913	2,313	23,500	76.0
중앙건설	1	4.00	0.00	3,297	22	31,000	0	17,250	55.6
케이씨텍 ⓒ	5	4.00	0.20	521	-27	9,480	-487	6,650	70.1
케이아이씨 ⓒ	0	4.00	0.00	1,017	0	15,200	0	7,900	52.0
케이피케미칼	3	3.70	0.20	567	-187	13,433	433	8,150	60.7
코리안리 ⓒ	5	4.00	0.00	1,028	-217	17,040	-146	15,900	93.3
코오롱	1	4.00	0.00	504	-184	60,000	10,000	43,500	72.5
코오롱아이넷	0	4.00	0.00	1,006	0	17,100	0	1,685	9.9
키움증권	2	4.00	0.00	6,390	128	86,000	7,500	85,200	99.1
텔코웨어 ⓒ	2	3.50	-0.50	914	-185	14,400	-1,100	9,080	63.1
페이퍼코리아	0	4.00	0.00	522	0	12,500	0	8,140	65.1
포리올	0	4.00	0.00	8,166	0	81,000	0	60,900	75.2
포항강판	0	3.00	0.00	1,356	0	0	0	24,000	-
풍산	3	3.70	0.20	1,619	-410	30,000	-2,000	25,150	83.8
피에스케이 ⓒ	2	4.00	0.00	1,321	-184	16,500	-2,000	10,800	65.5
하나금융지주	9	3.80	0.10	5,527	-682	51,356	-7,215	45,300	88.2
하나로텔레콤	7	3.70	-0.20	29	-6	10,867	-433	8,780	80.8
하나투어 ⓒ	7	4.00	0.10	2,645	-339	109,371	-2,543	80,600	73.7
하이닉스	19	3.50	-0.50	2,152	-1,444	33,029	-10,026	25,000	75.7
한국가스공사	8	4.00	0.00	3,477	-45	76,000	2,750	67,000	88.2
한국금융지주	5	3.80	0.00	5,143	-544	83,000	6,500	80,000	96.4
한국단자 ⓒ	0	4.00	0.00	2,604	0	23,900	0	20,650	86.4
한국전력	11	3.90	0.10	3,230	-112	53,860	740	39,600	73.5
한국타이어 ⓒ	9	4.00	0.20	1,302	58	25,756	3,436	18,900	73.4
한미반도체 ⓒ	4	4.00	0.00	1,147	30	15,650	-750	11,600	74.1
한미약품 ⓔ	7	3.70	-0.30	7,140	-222	176,429	-7,771	136,500	77.4
한빛소프트 ⓒ	3	3.70	0.20	380	-	14,333	-267	11,200	78.1
한신평정보	1	3.00	-1.00	2,814	-	23,300	-12,400	19,100	82.0
한일시멘트	0	3.50	0.00	5,988	0	160,000	0	97,300	60.8
한진해운	7	4.00	0.00	1,929	182	67,957	582	52,100	76.7
한화	5	4.00	0.20	3,889	29	106,940	28,340	88,400	82.7
현대건설	11	4.00	0.00	2,809	-224	114,591	16,191	91,100	79.5
현대모비스	18	3.90	-0.10	9,744	159	118,222	-1,111	89,900	76.0
현대산업	10	3.60	-0.20	3,658	-237	110,250	16,375	99,800	90.5
현대오토넷 ⓒ	1	3.00	0.00	238	-8	7,500	-250	5,890	78.5
현대제철	16	3.80	-0.20	6,469	-291	103,050	12,400	88,800	86.2
현대중공업	5	4.00	0.00	21,199	-962	534,000	75,667	500,000	93.6
현대증권	6	3.30	0.00	2,012	11	25,440	-2,603	21,150	83.1
현대차	22	4.00	0.10	6,857	-159	94,773	-3,702	71,000	74.9
현대해상 ⓒ	14	4.10	0.10	1,634	111	28,343	4,005	25,750	90.9
호성케멕스 ⓒ	1	4.00	0.00	376	41	6,100	2,150	4,025	66.0
화성산업	0	4.00	0.00	3,030	0	23,000	0	17,750	77.2
화승알앤에이	0	4.00	0.00	2,387	0	14,500	0	14,250	98.3
화신 ⓒ	0	4.00	0.00	574	0	4,800	0	3,300	68.8
화인케미칼	1	4.00	0.00	16,357	132	165,000	27,000	115,500	70.0
환인제약 ⓓ	0	4.00	0.00	1,354	0	24,000	0	17,100	71.3
효성	1	4.00	1.00	5,692	1,105	91,000	30,500	66,800	73.4
휴맥스 ⓒ	9	3.70	-0.30	941	-409	19,333	-7,734	15,300	79.1
휴켐스 ⓓ	1	4.00	0.00	1,343	10	26,000	5,000	25,850	99.4
CJ	0	3.70	0.00	2,991	0	138,286	0	99,800	72.2
CJ홈쇼핑	9	3.60	-0.10	2,685	-743	81,025	-14,261	66,800	82.4
GS건설	13	3.80	-0.10	7,440	-384	217,500	37,429	188,500	86.7
GS홈쇼핑	10	3.50	-0.20	7,173	-396	97,556	-6,777	76,300	78.2
KT	11	3.40	-0.20	3,880	323	50,730	-1,270	42,850	84.5
KT&G	17	4.00	0.00	4,685	79	87,618	3,243	72,400	82.6
KTF	12	3.30	-0.50	1,375	-21	33,836	-881	33,000	97.5
LG마이크론	11	3.70	0.20	59	-	40,909	3,409	33,400	81.6
LG상사	6	3.50	-0.50	1,388	-31	36,500	-9,500	28,000	76.7
LG석유화학	9	3.80	0.20	6,485	168	59,175	5,432	52,400	88.6
LG전자	20	4.00	0.00	6,024	225	116,750	24,058	93,900	80.4
LG화학	19	3.90	0.00	10,289	730	132,158	16,587	111,500	84.4
LIG손해보험 ⓒ	12	4.00	0.10	2,123	-18	32,317	1,473	27,500	85.1
LS산전	3	4.00	0.00	3,878	76	89,933	21,933	75,600	84.1
LS전선	6	4.00	0.00	6,891	-47	142,333	18,833	138,000	97.0
POSCO	17	4.00	0.00	45,154	-2,877	836,647	109,109	645,000	77.1
SJM ⓒ	1	4.00	0.00	663	26	8,800	2,100	5,920	67.3
SK	7	4.00	0.10	18,432	944	280,667	62,881	268,000	95.5
SK네트웍스 ⓔ	0	2.00	0.00	1,539	0	21,600	0	23,650	109.5
SK텔레콤 ⓒ	16	3.80	-0.10	23,135	-323	256,573	11,073	211,500	82.4
SKC	5	3.80	0.10	2,072	618	45,040	9,707	39,000	86.6
STS반도체 ⓒ	1	3.00	0.00	201	-17	8,000	0	7,430	92.9
STX ⓔ	0	3.00	0.00	2,586	0	0	0	142,000	-

본 내용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등의 IR실시 동정을 소개하고자 본회에서 주선한 기업설명회 및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파악된 IR활동 내용을 게재하는 것임. 〈편집자 註〉

삼성전자(주) (10월 12일)
- **장 소** : 하나대투증권 한마음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주)포스코 (10월 16일)
- **장 소** : 우리투자증권빌딩 4층 우리아트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LG화학(주) (10월 16일)
- **장 소** : 전경련 3층 대회의실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LG전자(주) (10월 16일)
- **장 소** : LG트윈빌딩 동관 지하 대강당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주)하이닉스반도체 (10월 18일)
- **장 소** : 우리투자증권빌딩 4층 우리아트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삼성전기(주) (10월 19일)
- **장 소** : 교보증권 19층 컨벤션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주)부산은행 (10월 19일)
- **장 소** : CCMM빌딩 우봉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제일모직(주) (10월 24일)
- **장 소** :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현대자동차(주) (10월 25일)
- **장 소** : 굿모닝신한증권 300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대성산업(주) (10월 25일)
- **장 소** : 여의도 중식당 열빈
- **개최형태** : One-on-One Meeting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당사 사업현황설명

기아자동차(주) (10월 26일)
- **장 소** : 굿모닝신한증권 300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삼성카드(주) (10월 31일)
- **장 소** :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두산건설(주) (11월 2일)
- **장 소** : 여의도 63빌딩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신한금융지주(주) (11월 2일)
- **장 소** : 당사
- **개최형태** : 인터넷 생중계 및 Conference Call
- **참석대상** : 국내외 주주 및 투자관계자 등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현대제철(주) (11월 5일)
- **장 소** : 굿모닝신한증권 300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두산인프라코어(주) (11월 6일)
- **장 소** : 우리투자증권빌딩 4층 우리아트홀
- **개최형태** : 기업설명회
- **참석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목 적** :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